

濟州方言의 音韻變化攷

서 정 범

1) 濟州方言에 對한 學界에서의 研究業績은 相當한 成果를 올리고 있다 하겠다. 그 가운데서도 李崇寧博士님의 濟州方言의 形態論의 研究는 勞作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濟州出身인 玄平孝教授님의 濟州方言研究의 第一輯 資料篇은 濟州方言研究에 있어 貴重한 資料를 提供하여 준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濟州方言에 對해서는 音韻論의 으로 특히 ㄹ音 使用이나 形態的으로 봐서 가장 古形을 維持하고 있는 듯한 印象들을 가지고 있는데 筆者는 濟州를 몇차례 답사한 結果 濟州方言이 陸地語에 比해 音韻으로나 形態的으로 그 變遷이 比較的 앞서 있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本稿에서는 主로 音韻變化가 陸地語에 比해 현저한 例證을 提示하면서 形態的인 面에도 약간 언급하려 한다. 이리하여 本稿의 本主題인 濟州方言이 陸地語보다 그 變遷이 特殊한 面에서 比較的 앞서 있다고 하겠는데 그 原因을 考究하여 보여한다.

2) ㄱ化現象(軟口蓋音化)

ㅂ > ㅍ

- 꺾.....꺾
- 어둑다(어둑어).....어둑다
- 늑다(늑어).....늑다
- 더꼬다.....덜다
- 계뽴.....겨뽴
- 뽴다.....뽴다 (吹)

ㅂ > ㅍ

- 꺾.....박

ㅍ > ㅍ

- 꺾.....꺾(꺾삼)
- 꺾다.....꺾다

ㄷ > ㅍ

- 가꺾다.....다꺾다
- 홍꺾다.....흔꺾다

ㄷ > ㅍ

- 무꺾다.....무꺾다

- 시끄다.....실다 (說)
- 실다>시드다>시끄다
- 다끄다.....달다
- 달다>다드다>다끄다
- 몽골다.....만들다

文獻語에는 “핑골다”로 나타나는데 ㄷ>ㄱ化現象으로 본다면 “핑골다”는 평골다”에서 變遷한 말이라 하겠다.

핑골다 { >핑골다→몽골다 (濟州語)
>만들다.....(서울말)

ㅌ>ㅋ

- 퀴다.....튀다
- 퀴누니.....티눈
- 송콧.....손톱
- 비크레기.....비탈
- 쿨다.....타다 (乘)
- 쿨 친다.....투 친다
- 쿨.....틀 (機)

ㅌ>ㅍ

- 꾸(쇠).....꿌
- 꿈.....썰

ㅌ>ㅍ

- 바끄다.....벨다
- 벨다>바트다>바끄다
- 꺼릭.....터럭
- 꿈.....툼 (隙)

ㅌ>ㅍ

- 지꾸다.....짚다
- 지즈다>지주다>지꾸다

- ㅌ > ㅋ
- ㅌ > ㅋ
- ㅌ > ㅋ
- ㅌ > ㅋ

ㅈ > ㅊ

ㅌ > ㅍ

上記 例를 보면 濟州方言에서는 頭音에서나 語中에서 ㄱ, ㅋ으로 바뀌는 現象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이렇게 ㄱ으로 變遷하는 原因은 母音의 影響이라 하겠다. 母音은 聲帶를 振動시켜야 나는 有聲音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오는 子音도 調音位置가 聲帶와 가까운 곳으로 이끌어 들어 舌根과 軟口蓋에서 調音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現象은 濟州方言의 音韻의 變化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例證이라 하겠으며 이와 같은 現象은 勞力節約의 生理的인데서 오는 變化라고 보겠다.

바늘>바농

마늘>마농

과 같이 ㄹ>ㅇ 으로 변한 것도 앞서와 같은 이유에서라 하겠으며 濟州方言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子音인 ㅇ音의 使用은 바로 이와 같은 연유에서라 하겠다.

출리.....꼬리(尾)

도치(도끼).....도끼

출.....꿀(芻)

도깨비(도깨비).....도깨비

볼초리<譯下 30>

玉マ碓 龍의 초리<松江-2>

쓰리 <月-28, 杜初十六 40, 南明上 27, 字會下 6>

文獻적으로 봐서는 쓰리가 초리보다는 앞서 使用되고 있음을 알겠다. 濟州方言에서는 초리>출리가 使用되고 있다.

도치는 文獻에

도척(杜初廿五 2, 字會 中 16, 類合 上 28, 朴重下 12 癸丑 P 200)

도취(楞八 85, 杜初 十八 18, 南明上 40, 杜重 十五 9, 內二下 46)

도취(內重二86, 靑P. 20, 海東P. 48)

와 같이 도취, 도취, 도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도키는 후대의 發達로서 ㅈ>ㅊ型이라 하겠다. 平安道方言에서는 “도꾸”다. 濟州方言에서는 도취와 도끼가 並用되고 있다. 文獻에 돛귀(月千 106, 三강孝 32, 月釋-29 圓上 一六-112)도 나타나 있다.

출(芻)은 文獻에 보이지 않고 꿀은 文獻에 꿀(月八 98, 杜初八 23, 朴初上 66, 字會下 4, 類合下 38)로 나타난다.

출은 ㅈ>ㅉ이나 ㅉ>ㅈ이나 하는것은 斷定하기 어렵지만 濟州方言에서 ㅉ化하는 現象이 현저히 나타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ㅈ>ㅉ 으로는 것이 妥當할 듯하다.

도깨비도 도깨비에서 변해 내려온 말이라 하겠다. ㅈ : ㅉ에서 ㅈ과 ㅉ이 並用내지 ㅈ 單獨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濟州方言에서 比較的 氣音을 띄고 있다는 特徵的인데서 그냥 維持되어 使用된다고 하겠으며 萬若 濟州方言에서 氣音使用이 陸地語와 같다고 하면 출, 출리, 도깨비, 도치等의 말이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다.

3) 有氣音化

ㄱ>ㅋ

- 교스(교시).....교사(告祀)
- 곽향.....곽향(藿香)
- 쿠승ㅎ다(쿠심ㅎ다).....구수하다
- ㅋ짱ㅎ다(ㅋ똥ㅎ다).....가지뉘하다

ㄷ>ㅌ

- 토.....도(柶, 옷의 1點)
- ㄷ다(ㄷ나다).....다르다(異)

ㅂ>ㅍ

- 뉘개(뉘계).....뉘개
- 뽕.....병(瓶)
- 포제기.....보자기
- 푼채.....부채(扇)
- 고팡.....고방(庫房)

ㅅ>ㅆ

- 출리(찰리).....자루
- 상천.....상전(上典)
- 시칠.....시절(時節)
- 치다.....지다(그늘이)
- 주치다.....짚다

지치다>지치다>주치다

- 이치다.....잊다(忘)

이지다>이치다

- 해촌.....해전(海戰)
- 어촌녁.....어제저녁

ㄱ > ㅋ	
클르다	····· 끄르다
ㅂ > ㅃ	
품다	····· ㅃ다
ㄱ > ㅋ	
서트다	····· 썩다
썩다 > 서끄다 > 서트다	
ㄷ > ㅌ	
툰	····· ㅌ
툰국질	····· ㅌ국질
타다	} ····· ㅌ다 (剝)
ㅌ다	
탈	····· ㅌ기 (莓)
테	····· ㅌ (垢)
테	····· ㅌ (筏)
테	····· ㅌ (菜)
털다	····· ㅌ다 (拂)
트다	····· ㅌ다 (浮)
ㅌ다	} ····· ㅌ다 (摘)
타다	
털어지다	····· ㅌ어지다 (落)

文獻에는 ㅌ다(剝) ㅌ기(莓), ㅌ(垢), ㅌ(筏), ㅌ(菜), ㅌ다. ㅌ다(浮), ㅌ다(摘), ㅌ라
 ㅌ다와 같이 나타나는 語彙가 濟州語에서는 ㅌ으로 나타나고 있다.

ㅃ > ㅍ	
착	····· ㅍ
차개 롱	····· ㅍ개 롱
착클레기	····· ㅍㅍ이
체여지다	} ····· ㅍ어지다
ㅍ어지다	
차다	} ····· ㅍ다 (織)
ㅍ다	
치다	····· ㅍ다 (蒸)

치지다.....찢다 (裂)
 (불) 꿰이다..... (불) 죄이다
 양촉.....양쪽

15世紀 文獻에는 語頭子音에 ㅂ으로 표기하던 語彙들이다.

그런데 文獻語에서 語頭に ㅂ이 쓰이던 말이 濟州語에서 有氣音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語彙는 濟州語에서 ㅂ音이 有氣音化 하였는지 아니면 硬音이 有氣音化하였는지에 對해서는 좀더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ㄱ>ㅎ

훅다.....훑다
 팔호로.....팔고로
 허끈하다.....거뜰하다

軟口蓋音 ㄱ을 聲帶와 가장 가까운 調音位置를 가지고 있는 喉音 ㅎ으로 이끌어 들인 것이다. 이러한 ㄱ>ㅎ現象은 母音의 영향이라 하겠으며 勞力節約現象에서 연유되는 것이라 하겠다.

사이 ㅎ

山ㅎ돛>산돛.....산돛 (산뻬지)
 사냥ㅎ개>사냥개.....사냥개
 솔ㅎ가죽>솔카죽.....살가죽
 알녘ㅎ집>알녘침.....아랫녘집
 빵ㅎ집>빵침.....빵집
 돌ㅎ질>돌칠.....돌질
 돌ㅎ깅이>돌깅이.....돌계 (糞)
 물ㅎ깨기>물깨기.....물고기

有氣音化 現象과는 反對로 ㅂ音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시기다.....시키다
 고쳐놓다.....고쳐놓다

ㄷ : ㅌ의 應對 現象도 나타나는 例가 있다.

뽕뜯지침.....박뜯기침
 부뜨다.....불다

이렇게 濟州語에서는 有氣音化現象이 陸地語에 比해 顯著히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러한 現象은 強意化現象과 部分的으로는 發音易化 現象도 兼하여 있다고 하겠다.

ㅈ : ㅉ

친.....낀
 미치럽다.....미끄럽다
 부치럽.....부끄럽
 부치럽다.....부끄럽다

π > ㅌ化된 현상의 例라 하겠는데 이는

낀 > ㄱ > 친
 미끄럽다 > 미끼럽다 > 미치럽다
 부끄럽다 > 부끼럽다 > 부치럽다

ㅌ蓋音化되면서 ㅈ으로 바뀐 것이 有氣音 ㅈ으로 變하였다.

ㄱ > ㅈ
 미끼럽다 > 미찌럽다
 부끼럽다 > 부찌럽다

보다는 친, 미치럽다, 부치럽다가 有氣音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다 強意性을 띤다고 하겠다. 硬音이 有氣音으로 변하는 것보다 強意性을 요구하는데서의 發達이라 하겠다.

4) 硬音化

ㄱ > ㄲ
 갑.....값
 꿀.....굴 (조개)
 갈래.....갈래
 까볍다.....가볍다
 ㄷ > ㅌ
 또시.....다시
 따다.....다르다
 댕나다.....다르다
 ㅂ > ㅃ
 빼지다.....빚다
 비지다 > 빼지다.
 ㅍ (本).....ㅍ
 ㅅ > ㅆ
 씨집.....시집
 쟁 (내다).....성 (내다)
 쫄.....쫄

쫘씨	쫘씨
쓰물	}	스물
씨물		
쫘	쫘(裏)
쫘들	쫘들
쫘	쫘
쫘지	쫘지
쫘비늬	쫘비름
쫘다	쫘다
쫘나기	쫘나기
쫘가지	쫘가지 (가 없다)
쫘 (힘 > 쫘 >)	힘
ㅈ > ㅉ		
쫘 (쫘)	쫘
쫘 (쫘세)	쫘 (것 狚)

反對로 平音語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쫘다	쫘다 (動詞)
가끄다	꺅다
가마귀	}	가마귀
가나귀		
가메기		
꺅테기	꺅테기
꺅	}	꺅
꺅장		
ㅈ스락	}	꺅꺅라기
ㅈ시락		
꺅꺅꺅	꺅꺅꺅 (꺅꺅꺅 소리)
꺅꺅꺅	꺅꺅꺅 (꺅꺅꺅 소리)
꺅꺅꺅	꺅꺅꺅
꺅다	꺅다
꺅	꺅
꺅보리 (꺅오리)	꺅보리

좃다.....쫘다
 징그리다.....쨩그리다

5) 口蓋音化

지럭시.....기럭지
 핫짐.....핫김
 저울.....겨울
 제집(지집).....겨집
 지등.....기등
 저틀.....겨틀
 줌(저고리).....겹(겨고리)
 (앞)길.....(앞)김
 전주다.....견주다
 저광할다.....겨어보다
 제우.....겨우
 제.....계(契)
 저끄다.....겨다
 절단.....決斷
 젤혼.....結婚
 절 만나다.....결 만나다
 정치다.....경치다
 (물)절.....물결
 전디다.....견디다
 반지다.....반기다
 주웃할다.....기웃하다
 줌다.....김다(縫)
 지쁘다.....기쁘다
 지프다.....깁다
 추치다.....추키다
 내치다.....내키다
 찌다.....떠다

6) 人>ㅈ

금지.....금새(價格)

통지.....통지 (꽤지우리)
 천징.....천식(喘)
 노로쟁이 (노로쟁이).....노룻

有聲音間에서 ㅅ>ㅆ의 形이 있는 反面에 “적지다”의 같은 例도 나타나는데 “적지다”와 “적지다”의 變形이 存在한다.

그리고 頭音에 있어서도 ㅆ : ㅅ의 對應語가 보인다.

정에.....성에
 짜양이질.....짜양이질

이와는 反對로 ㅆ과 ㅅ의 對應語도 나타난다.

신달래꽃.....진달래꽃
 싱그리다.....정그리다
 미시근하다.....미지근하다
 꿈자리.....꿈자리

7) ㄹ>ㄴ, ㄴ>ㄹ

비눔 } 비름
 비눔 }
 아눔.....아름
 바구리.....바구니

8) ㄷ>ㄹ

바룻케기.....바닷고기
 바룻케기.....바닷고기
 바르케기.....바닷고기
 걸다.....걸다(步)

“바르”는 바다>바라의 變遷에서 發達된 말이라 하겠다.

15世紀 文獻語에 “바룻”로 나타나는 것도 역시 ㄷ>ㄹ의 發達形이라 하겠다.

“걸다”는 “걸다” 걸고 活用되어 ㄷ變則에서 語幹末音 ㄹ로 完全히 바뀌었다.

쫓 거울.....쫓겨울

“겨울”이 “거울”로 되는데 이는 “깃”이 “질”로 바뀌는 것과 같다. 손깃>손질 발깃>발질.

일다.....잇다(지붕을 잇다)

9) 子音脫落

ㄴ

- 초님.....촌님
- 아진일.....앉은일
- 엿다 }.....
- 못다 }.....엿다
- 유지다 }
- ㄹ
- 익다(익어).....읽다
- 식 }.....
- 숙 }.....삼
- 득.....닭
- 할.....흙
- 여덥.....여덥
- 저르.....저를(暇)
- 겨를>저를>저르>저르
- ㄷ
- 엇다(어시면).....없다
- ㄴ>ㅇ
- 용시.....농사(農事)
- 농스>농스>용스>용시의 發達인듯(?)
- ㅍ>ㅎ
- 하움 }.....
- 하위염 }.....하똥
- 하우염 }
- 하피음(譯上 37, 同文上 19, 漢 205P)
- 하피음(物譜 氣血, 譯補 23)
- 하회흙(朴重中 51, 朴重下 9)

濟州語의 “하우염”은 文獻에 나타난 “하회흙”이 변한 말인지 아니면 하피음이 변한 말인지는 速斷을 不許하나 아마도 이는 하피음>하회흙>하위염의 發達을 이룬 듯 하다.

흙목.....밭목

唇音 ㅂ이 省略되고 喉音 ㅎ만 남았는데 母音이 聲帶를 울려서 나오기 때문에 母音인 有聲音에 이끌려 聲帶와 가까운 喉音으로 調音位置를 바꿨다고 보아진다. 이 例로 보아 하피음>하회흙>하위염의 發達로 보는 것이다.

풀목>을목>홀목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여겨진다.

ㅎ>ㅇ

- 아옴.....아흠
 - 아은.....아흔
 - 아으레.....아흐레
 - 비엥기.....비헝기
 - 이른.....일흔
 - 홍압.....홍합
- 有聲音間에서의 ㅎ脫落이다.

10) 子音添加

ㄱ

- 격죽.....거죽
- 눅다.....누다(오춤누다)

눅다, 눅고와 같이 子音語尾가 올때에는 “눅~” 이지만 母音 語尾가 올때에는 “누으니” 와 같이 ㄱ이 添加되지 않는다.

ㄴ

- 듬비.....두부
- ㄷ
- 골총.....古塚
 - 얼치닥.....어제저녁
 - 길그시.....지그시
 - 물척.....무척
 - 거력ㅎ다.....거역하다
 - ㄹ를.....가루
 - ㅁ를.....마루
 - ㅎ를.....하루
 - 모살.....모새
 - (눈)ㅈ술.....눈자위(눈ㅈㅈ)
 - 젓범술.....젓범새
 - 몰래.....모래(砂)
 - 게우리.....거위(鵞)
 - 물룻 }.....무룻
 - 물룻 }

○

임으다	이다 (載)
바당	바다 (海)
아방	아버지
바눔	바늘
마눔	마늘

바늘, 마늘 > 바눔, 마눔으로 된것은 역시 聲帶를 올려서 나오는 母音의 영향으로 調音位置가 가까운 軟口蓋의 調音位置를 갖는 ○으로 바뀐 것이다.

ㅂ

쌈다	싸우다
뽕다	뚫다

11) ♀ 表記語

① 名詞

세담	세담
세담하다	<家언 二 27, 譯補 29>	
전복	전복
전복	(鯧蛤 <物譜介虫>)	
보자기	보자기
보복	(袱) <倭下. 15, 同文上 58, 內一 67>	
보습	보습
보십	<類合 上 28, 物譜 耕農>	
셀물	셀물
무릎	무릎
무릎	法華一55, 月九 36上, 釋九 29 楞四 27	
젓	젓
젓	<字會上 33>	
저녁	저녁
저력	(修美善曲 1)	
금	금 (線)
금	(月二 38, 法華二 16)	
막	막가지
막	<杜初八 10, 杜初廿 47, 字會中 19>	

- 모물.....모밀
- 모밀<字會上 12, 四解下 13, 同文下 2>
- 뽕목.....괘목
- 목(首) <杜初 十六 56>
- 뭇슴.....무서움>무섬
- 므쉬음<月二59>
- 므쉬엿다<月二23>
- 즈를 }.....겨를
- 즈르 }
- 좁옷.....겹옷
- 즈갓.....겉
- 좁시.....겹시

② 用言

- 좁다.....집다
- 집다<南明 下 70. 救簡-63>
- 즈물다.....저물다(暮)
- 저물다<杜初 廿五 7, 字會上 1>
- 마지다.....가지다(持)
- 팔가져 나오나늘<釋 六 14>
- 德을 머거 가쇼스물<榜 二 107>
- 몰다.....물다(驅)
- 몰다<杜初 廿一 16, 法華 239, 圓下 三之一53>
- 손다.....쏟다
- 쏟다 爲覆物<解例合字>
- 스다.....서다(立)
- 서다<釋十九 5, 月二 39, 榜三 36>
- 스꼬다.....쉴다
- 죽다.....적다
- 神膏를 디거내야<南明上 15>
- 쇠에 디그면(點鐵)<金三 四 56>

장검을 들고 직으려 흘계〈三譯二 26〉

뽑다.....뽑다(拔)

뽑다〈朴初上 44, 同文下 2, 杜重十三 41〉

웃다.....차치다

앗다(奪)〈月十 117〉

뵈다.....뵈다

준디다.....전디다

갓잡하다.....가잡하다

성쌈하다.....꿈꿈하다

쌈쌈하다.....잠잠하다

세담>세담>사담.....세>.

전부>전부>준부.....서>.

보>보.....보>.

보심>보심.....서>.

썰물>썰물.....서>.

무릎>무릎 {서>.

.....서>.

젓>젓>젓.....서>.

꿈>꿈.....서>.

박>박.....서>.

모밀>모밀.....밀>물.....서>.

풀무>풀무.....보>.

므쇠음>므슴>므슴.....서>.

집다>줍다.....서>.

저를>저를>저를>저를>저를.....서>.

겉옷>겉옷>겉옷>겉옷.....서>.

겉>겉>겉+옷>저갓>저갓>저갓.....서>.

덤시>겹시>겹시>줍시.....서>.

저물다>저물다>저물다.....서>.

가지다>학지다.....서>.

물다>물다.....보>.

술다>술다.....보>.

셔다>서다>사다	ㄷ > .
슈다>소끄다>스끄다	ㅅ > .
딕다>직다>죽다	ㅣ > .
뽑다>뺨다	ㅅ > .
앗다>웃다	ㅌ > .
뺨다>뺨다	ㅌ > .
견디다>전디다>전디다>존디다	ㄷ > .
ㅁ 꺾ㅎ다(가꺾하다)	ㅌ > .
꺾ㅎ다(꺾꺾하다)	ㅅ > .
꺾꺾하다(꺾꺾하다)	ㅌ > .

꺾 > .	1
ㄷ > .	10
ㅅ > .	7
ㅣ > .	4
ㅌ > .	2
ㅌ > .	2
ㅌ > .	6
計	32

위와 같은 統計를 얻을 수 있는데 特別히 初聲이 ㅌ音을 갖는 語彙에 있어서 >·化 現象이 더욱 나타나고 있다.

③ 副詞

솔째기	살짜
뽕짜	바짜
조근조근	자근자근
솔솔	살살
션션	깐깐
섬박	감박
ㅁ물ㅁ물	가물가물
ㅁ만ㅁ만	가만가만
꺾고꺾	꺾고꺾
먼저(먼즈)	먼저
곶짜(곶짜)	모두

- 꺾똥이.....가지런히
- 꺾끈.....발끈
- 꺾끈.....잘끈
- ㅇ슬랑 ㅇ슬랑.....어슬렁어슬렁
- ㅇ적돌썩.....음쪽달썩

16箇의 單語에서 ㅇ로 表記되며 頭音에 “ㅇ”음이 나타나는 것은 特記할 일이라 하겠다.

④

- 꺾꺾립다 }.....간지립다
- 꺾꺾다 }.....간지립다
- 꺾꺾.....간지립
- 꺾꺾물다.....다물다
- 꺾꺾이.....겨드랑이
- 꺾꺾.....젓가락
- 꺾꺾비.....개구리
- 꺾다 }.....가지다
- 꺾다 }

“꺾다”는 꺾다(奪)의 末音ㅅ이 有聲音間에서 ㅅ>ㅈ으로 된 말이라 하겠다.

文獻에는 頭音이 母音“ㅇ”로 나타나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濟州方言의 用言에서 그 例를 찾아 볼수 있다는 것은 奇중한 例가 아닐수 없다. 이러한 例들은 濟州方言에서 “ㅇ”로 表記되는 말들이 15世紀 文獻에 나타난 從來의 音價에서 通時的으로 내려오는 音이라는 觀點에 의아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꺾다는 “꺾다>꺾다”와 같은 變遷을 가져 온 것이라 보아야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든 例들은 文獻에는 ㅇ로 나타나지 않는데 文獻語와는 語源的으로 別途로 ㅇ音이 發達한 것이라 보아야겠는데 그렇게 되면 文獻에 記錄된 ㅇ音語와 濟州方言에서의 ㅇ表記語가 通時的인 연결을 갖는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諸現象들은 濟州方言에서 ㅇ로 表記되는 語辭는 濟州方言 特有的 母音의 變遷音이지 文獻에 나타난 ㅇ音語와는 別途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그것은 앞서든 例 가운데 口蓋音化되어 다시 ㅇ音化된 例(겨를>저를>저를>꺾를)를 보면 ㅇ音은 아주 比較的 最近에 發達된 音이라 하겠다.

한편으로 ㅇ音이 消失되고 한편으로는 ㅇ音이 産出되는 것이라고 보아야겠는데 이러한 音韻的인 現象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文獻에서 ㅇ音起源이 아닌 語彙의 第一音節에 ㅇ音을 가지고 있는 말에 對하여 아마도

이것은 過誤의 發達일 것이라 보는 見解가 있는데 한두마디의 語彙라면 모르겠지만 上記된 例와 같이 많은 例證이라면 過誤의 發達도만은 볼 수 없을 것 같다. 어쩌면 ㅎ音으로 表記되는 語辭는 陸地語보다 發展된 새로운 音이라 하겠다. 그것은 곧 第三의 ㅎ音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筆者는 15世紀 文獻에 나타나는 ㅎ音에 對해 現實音으로 存在했었을 것인가 하는데 의아심을 품고 있는 터이다.

訓民正音解例에 依하면 母音의 基本文字는 ㆍ, ㅡ, ㅣ의 三字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ㆍ”라고 하였다.

그런데 基本音이라고 할 수 있는 三音 가운데 어쩌서 ㆍ音만 消失되었을까? 그리고 ㅎ音만이 어쩌서 다른 音으로 많이 바뀌었을까? 當時에 現實音韻으로 存在했었다면 어쩌서 ㅎ를 頭音으로 하는 말이 하나도 없을까.

이러한 의아심들이 當時 中央語의 現實音에서 ㅎ音의 存在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든 濟州方言의 諸現象을 볼진대 濟州語가 陸地語에 比해서는 그 變遷이 무척 앞서 있다고 보아진다 하겠다.

그것은 數世紀 앞서 변천한 것이라는 여러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母音만이 15世紀語에 表記된 殘影으로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濟州語는 子音의 變遷이나 기타 變遷이 陸地語에 比해 현저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唯獨히 母音만 15世紀語의 音을 이어 가고 있다고 하겠는가? 陸地語에서도 이미 상실된 音이 唯獨 濟州에만 그 殘影이 남아 있다고 하겠는가? 筆者는 濟州語에서 ㅎ로 變遷되는 말은 文獻에 나타나는 ㅎ語의 音과는 別途의 發達이라 여겨지는 것이다. 그것은 앞서도 例證한 바와 같이 ㅎ音의 殘影이라고 하면 ㅎ音이 消滅단계에 있다고 하겠는데 ㅎ音이 새로 生成되고 있다는 嚴然한 言語事實로 實證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李崇寧博士님은 ② 濟州語의 ㅎ音에 對해서 ㅎ音은 圓唇性의 強弱에서 差異를 보여 때로 [o]로 發音되고 “ㅎ다”의 “ㅎ”音에서는 圓唇性이 보다 弱하다고 하였으며 “ㄹ”의 “ㅎ”音은 圓唇性이 至極히 強하다고 하였다. 濟州市에서는 “ㅎ다”의 “ㅎ”는 “허다”로 바뀌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濟州島에서의 “ㅎ”音은 圓唇性의 強弱의 差異가 있으며 “ㅎ다”의 “ㅎ”와 같은 ㅎ는 “ㄴ”音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겠다. 이러한 一連의 事實들은 “ㅎ”音의 圓唇性과 書寫가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2) ㅎ表記語

ㅎ表記語

읍갈리.....열구리

유라분	여러분
유라개	여러개
유름	여름(夏)
유섯	여섯
유꼬다	위다
유다	약다
유치	열치
유통	열통
유물(유물)	여물
유	이렇게

유와 같은 表記語가 생겨나는 것도 유音이 濟州에서 特殊的으로 發達한 音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3) 其他母音

前舌母音化

ㅏ > ㅑ	
공채	공차(空車)
혼채	혼차(혼자)
공초새	공치사
ㅓ > ㅑ	
임노리	웃놀이
내 > ㅑ	
이베	외배
ㄱ > ㅑ	
구멍	구멍
ㅋ > ㅑ	
꿇빙	외빙
ㅋ > ㅑ	
킹이	계(蟹)
지주	祭主
식	삼(文獻語 畵)
밀뫼	밀밭(麥田)

中舌母音化

ㄱ > 一

웃다.....없다

느.....너

은매.....얼마(文獻語 언마)

單母音 > 二重母音

ㅏ > ㅑ

야편.....아편

ㅓ > ㅕ

웨치다.....농치다

물케기.....물고기

웨.....소(牛)

ㅖ > ㅗ

웨롭다.....괴롭다

웨.....괴

웨다.....괴다

공웨당.....公會堂

위 든 例로서 濟州方言에서 母音도 亦是 子音과 같이 變遷이 심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다

14) 人維持語

베설 } 벨(腹)
베슬 }

아시.....아우

조사먹다.....쪄아먹다

가침 } 감(資料)
가슴 }

어버시.....어버이

거수에.....거위

15世紀 文獻에 △으로 表記하던 말이 濟州語에서는 ㅅ이 그대로 維持되고 있다 하겠다. 이는 △의 音價가 所謂 [Z]라고 하는 見解를 무너뜨리고 있는 例라 하겠다. ③ 濟州에서 人維持語는 標準語에 比한다면 變하지 않은 音이라 하겠다.

15) 音節縮約 및 省略

웃.....이웃

영(이영).....이렇게

영정	이렇게 저렇게
알	아래 (下)
봄	뽕뽕
에 딸	어이 딸
젓곰(젓곰)	젓고름(안고름)
도깨(도깨)	도리깨
빌(빌)	내일
긷다	가지다
딛다	}	다르다
툇다		
쌌다	싸우다
지간훑다	어지간하다
미아톨눔	이눔의 아들눔
왜 날미나	왜 나를 미워하나
간매성	가운데형
왕상잡싸	와서 사가지고 가십시오
비오쿠까	비가 오겠읍니까
싯당왕	있다가 오너라
오랑늘당 잡싸	와서 놀다가 가십시오

위와 같이 音節이 縮約 省略되며 形態部가 짧다고 하겠다.

16) 語幹伸張

솔뜨다	살다
스꼬다(스꼬다)	쉴다
다꼬다	땀다
무꼬다	뉘다
저꼬다	겪다
바꼬다	}	벨다
바트다		
저꼬다	}	쥬다
저트다		
시꼬다	}	실다
시르다		

여끄다	엮다
안즈다	앉다
을뜨다	울다
더뜨다	떨다
지뜨다	짚다
골뜨다	끓다
가뜨다	갈다
지뜨다	질다
가끄다	깎다
마뜨다	말다
너르다	넓다
야뜨다	알다
실뜨다	싫다
알흐다	얕다
부수다	붓다
더끄다	닫다 (閉)
일흐다	얕다
골흐다	끓다
허뜨다	홀다
홀뜨다	훔다
할뜨다	}
할르다		
하르다		
쐈르다	}
쐈르다		
쥘르다		
ㄴ뜨다	}
ㄴ뜨다		
부뜨다	}
부뜨다		
지꾸다	}
주끄다		

부수다	붓다
늑줍다	} 낮다
늑잡다		
백스다	빵다
뿔우다	뿔다
뿔부다	뿔다
다히다	닿다
안지다	안다
주치다	짓다
빼지다	빚다
이지다	} 잇다
이치다		
조치다	좃다
찌지다	찢다
이시다	있다
이시다	있다
고리다	끓다
으시랴다	없애다
벼올다	벌다
유저다	없다
다히다	닿다
만할다	많다
잉으다	이다(載)

造語論的인 면에서 볼때 接尾辭 으, 우, 그리고 “이”가 添加됨으로써 새로운 語幹을 形成한 것인데 一音節語의 語幹이 모두 二音節의 語幹으로 되었다. 基本語幹의 末音이 모平子音으로 끝나는 말이었던데 注目할만 하다. 語幹末音이 子音일 경우는 活用時 音韻變化를 일으키기 때문에 語幹을 固定化시키고자 하는 心理的인 慾求에서 接尾辭 으, 우, 이를 添加시킴으로써 語幹末音を 母音으로 그치게 한 것이라 본다.

예를 들면 “쉬다”는 “쉬는다”와 같이 活用될 때에는 鼻音의 同化作用을 일으켜 “성는다”로 發音되기 때문에 “서끄다”로 語幹이 母音으로 끝나면 그런 音韻變化는 일어나지 않고 “서끈다”와 같이 活用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母音으로 끝나는 語幹으로 變하게 하고 單音節의 語幹이 二音節의 語幹으로 되는 것은 聽覺映像을 強調하기 위한 作用도 한다고 본

다. 十五世紀文獻에 나타나는 “잇다” “이시다”의 變形語幹은 “이시다”가 보다 後代의 發達形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앞서와 같은 理由에서 즉 語幹의 固定性을 意圖하고 聽覺映像을 強調하기 爲한데서 形成된 것이라는 것을 濟州方言에서 보여준다고 하겠다. “잇다”는 “이시다”의 縮約形이 아니고 “이시다”는 “잇다”의 音節伸張形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接尾辭가 連結되어 語幹 一音節語를 二音節語로 늘이고 語幹을 固定시키려는 現象은 聽覺映像을 強調化 하려는데 있을 것이다.

17) 音節伸張

지넵이	지네
제지	젓
조갱이	조개
조쟁이	좃
(밭)그릇	밭금(밭자취)
소곱 }	속(裏)
소곱 }		
내음살	벌새
느랑	늘(恒常)

18) 濟州語 變遷의 根本的 要因

以上 濟州語에 對해서 音韻論的인 面과 若干의 形態論的인 面에서 考察한 셈인데 陸地語에 比하면 子音이나 母音의 變遷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例證하고 있음을 보겠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提起되는 것은 濟州島는 陸地와는 言語障壁인 바다에 둘러 싸여있기 때문에 陸地語의 影響을 덜 받고 比較的 音韻變化가 적을 것 같은데 變遷이 比較的 앞서 있는 原因이 무엇이겠느냐에 있다. 특히 陸地語에 比해 頭音의 音韻變遷이 현저하다는 것은 注目할만 한 것이다. 이의 直接的 原因은 말할 것도 없이 聽覺映像을 強調하고 意味傳達의 明確性을 期하는 동시에 아울러 勞力節約의 生理的인 作用이 兼해서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原因은 陸地語의 音韻變遷에도 適用되는 것으로 보다 根本的인 要因은 다른데 있다고 여겨진다.

1964年 초여름에 國文科 四學年 學生들과 더불어 學術調査次 濟州島에 간일이 있었다. 筆者로서는 두번째였다. 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떠나야 되는날 서귀포에서 쉬게되었다. 새벽에 요란스러운 창문흔들리는 소리에 잠을 깨었다. 바람이 몹시 불어 창문을 마구 흔드는 것이었다. 바람이 너무 세어 오늘 배가 뜨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부듯가로 갔다 선원에게 오늘 배가 뜰 수 있느냐고 물었다. 선원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다시 큰 소리를 내어 물었다. 그래도 선원은 들리지 않나보다. 배 있는 쪽으로 바짝 닥아서 고향을 질러

물었더니 그때야 겨우 알아들은 모양이다. 이런 정도의 바람이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선원과의 대화에서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제주방언의 音韻論的 변화가 육지어에 비해 현저한 이유가 바람때문이 아니겠는가? 선원은 바람소리 파돏소리때문에 내가 묻는 소리를 곧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주는 三多島라고 불리워지는데 그는 “多”가운데 바람이 끼어 있는 것이다.

제주의 지붕은 바람이 세기때문에 굽은 새끼줄로 그물같이 떠 있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담이 쌓여져 있는데 이도 바람을 막기 위해서고 무덤에도 四角形으로 돌이 쌓여져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生業이 바다와 直結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소리 파도소리로 인해 적은 소리로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 큰 소리를 내게 되고 그러므로 청각영상을 강조하려는 현상과 노력절약 현상이 더욱 언어에 作用한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남자들은 배를타고 육지의 왕래를 물론 海產物 採取에 從事하게 되고 女性들도 떡, 전복, 소라, 기타 海草를 따려고 바다에 나가게 된다. 바다가 아니더라도 한라산 주변에 농업이나 목축을 하면서도 바람이 세기 때문에 意思疎通에는 자연 청각영상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과 노력절약 현상이 陸地人에 비해 크게 作用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제주方言이 육지어에 비해 音韻變化가 현저한 要因은 “바람”이라고 하겠다.

獨逸의 Heinrich Meyer-benfer는 音聲推移가 地理的原因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美國의 Collitz는 이에 同調하면서 地理的環境에 依해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子音推移가 南部獨逸 알프스地方 高地 獨逸語에서는

$$\begin{aligned} b > p, & \quad d > t, & \quad g > k \\ p > pn, & \quad t > tn, & \quad k > kn \end{aligned}$$

有聲破裂音을 無聲破裂音으로 無聲破裂音을 氣音化하지만 北部 獨逸語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氣候的 地理的 要件을 들면서 높은 山岳地帶에 棲息하면 肺의 자극을 받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즉 呼吸이 격렬해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라 하였다. ④

그런데 美國의 Sapir는 ⑤ 變化의 原因을 氣候나 地理的 條件에 두는 것에 反對하고 있다 어떤 學者들은 코가사스 山脈地方에는 험한 子音을 가지고 있으나 그와 對照的으로 自然의 惠澤을 입은 地方에는 더욱 유쾌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西北海岸의 土着民은 많은 種類의 食用 海產物을 豊足히 가지고 있어서 比較的 安樂한 生活을 하고 苛酷한 氣候때문에 苦生하고 있지 않아도 그들의 發音이 험하기로서는 코가사스 그것에 못지 않으며 에스키모人처럼 自然의 環境에 억눌린 백성은 없을 것이다. 子音의 험하기로서는 아메리카의 西北海岸의 土着民에 비하면 比較的 순한 音韻 組織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Jespersen은 地理的 要因을 反對하면서 알프스에 있어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언어나

라틴語를 말하는 사람이 모두 高地 獨逸語를 말하는 사람의 이웃에 있으나 다 그런 子音의 推移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뿐더러 山岳地帶에 있어서는 確實히 건거나 勞動하는데 있어서 生理的인 현상으로 呼吸하는데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본래 子音의 變化는 肺의 活動에 달린 것이 아니라 聲帶에 달려 있다고 反駁하였다. Jesperse은 이어서 高地獨逸語와 꼭 같은 현상은 낮고 평평한 나라에 살고 있는 덴마크에서도 p, t, k가 強한 氣音 破擦音으로 변하고 有聲音 b, d, g가 無聲音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였다⑥.

以上 例學한 外國의 學者들의 氣候의 地理的 要件과 筆者가 濟州方言의 變化를 促進시킨 것은 氣候的條件인 “바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同一線上에 놓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아메리카의 西北海岸의 土着民이나 코카서스 地方에서의 氣候가 주는 것은 그 音韻組織을 말하였음이지 어떤 音의 音韻變化를 指適한 것은 아니었다. 뿐더러 에스키모人は 가장 惡條件의 氣候속에서도 아메리카의 西北海岸의 音組織보다 순하니까 氣候가 音組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좀 考慮의 餘地가 있다고 본다. 에스키모人は 人口密度가 희박하기 때문에 意思疎通의 期會가 극히 적다고 하겠다. 言語라는 것은 個別的인 것으로 그 音韻組織이 다르기 때문에 一律的으로 본다는 것은 危險한 考察이라 하겠다. 그리고 高地獨逸語의 推移音을 生理的인 현상으로 肺의 作用으로 본 것은 Jespersen이 反駁했지만 筆者가 濟州方言에서 보는 原因을 그런 地理와 氣候的條件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앞서 든 外國의 學者들의 氣候와 地理的 條件은 筆者가 말한 氣候하고는 그 意圖가 根本的으로 다르다고 하겠다. 뿐더러 高地獨逸語나 코카서스는 子音問題에 局限하고 있으나 濟州方言은 子音뿐만 아니라 母音의 變遷이 平장하며 形態論的으로나 統辭論的으로도 特殊한 變遷이 比較的 앞서고 있는 것이다.

濟州語가 言語障壁인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陸地語에 비해 音韻論的으로나 形態論的으로나 統辭論的으로나 그 變遷進化가 빠른 原因을 生業과 關聯되는 데서 오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바람이 세계 불어 온다는 데서라 하겠다. 그러므로 濟州語는 言語障壁인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는 孤島이기 때문에 陸地語의 영향을 적게 받고 濟州自體의 獨自的인 發展을 꾀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이 잦고 센 곳의 말은 變遷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個別 言語學的인 면에서 볼 때는 그 音韻이나 形態, 統辭論的으로 特殊性들이 있는 것이므로 이런 점을 重視해야 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기후적 조건하에서도 그의 音韻과 形態, 統辭論的인 特殊性, 生業, 地理的條件, 人口의 密度등이 서로 얽혀져 하나의 특수한 변천을 가져 온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19) 結論

濟州語의 音韻變化와 若干의 形態論的인 考察을 꾀한 셈인데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濟州語의 特徵의인 것의 하나로서 軟口蓋音化 現象이 뚜렷하다. 有聲音間에서나 語幹末音, 그리고 頭音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母音의 影響으로 나타난다. 母音은 聲帶를 振動시켜야 나므로 勞力節約 現象에 依하여 聲帶와 먼 調音位置에 있는 子音을 가까운 調音位置인 軟口蓋音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이다.

② 有氣音化 現象도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特히 陸地語에서 硬音으로 나온 것이 濟州語에서는 有氣音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硬音化 口蓋音化 現象도 陸地語에 比하면 굉장히 앞서 變遷되어 있다.

④ 子音脫落, 子音添加等도 陸地語에 比하면 현저히 變遷相이 나타나고 있다.

⑤ 濟州語의 母音中에 ㅇ音으로 表記되는 特殊한 母音의 發達이 있다. 濟州語에서 表記되는 ㅇ音語는 15世紀 文獻語에서 表記된 ㅇ音語의 殘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濟州語가 文獻語에 記錄된 ㅇ音語와는 關係없이 別途로 發達한 音이 다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文獻語에 ㅇ音으로 表記된 語外에 濟州 特有하게 發達한 語彙들이 多數 이를 證明하고 있다. 이 ㅇ音語는 새로이 發展된 第三의 ㅇ音이라 하겠다.

⑥ 單音節의 語幹을 가진 말로서 末音이 子音일때는 接尾辭 으, 우, 이 등이 들어 새로운 語幹을 形成하고 있는데 이는 聽覺映像을 強調하려는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⑦ 이렇듯 濟州語가 陸地語에 比해 子音이나 母音 그리고 形態的인 面의 變遷이 현저한 것의 直接의 原因은 強意化, 勞力節約現象등의 理由를 들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陸地語에도 適用되는 一般的인 原因이라 하겠다. 濟州語의 變化를 陸地語보다 밀고 나간 것은 濟州島가 지니는 地理的 條件에 의한 氣候인 바람이 갖고 세차게 분다는데서 生業과 地理的 條件과 關聯되어 보다 簡便하고 보다 聽覺映像을 強調할 수 있는 欲求에 依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濟州語가 陸地語에 比해 變遷이 현저하다는 것은 “바람”때문이라 하겠다.

註

① 筆者; 十五世紀 國語의 表記法 研究 P 35 慶熙大學校 論文 第三輯

② 李崇寧; 濟州島方言形態論의 研究 P 283 國語學論叢

③ 筆者; 十五世紀 國語의 表記法 研究 P 35 慶熙大學校論文 第三輯

④ Callizt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P. 413, 1918

⑤ Sapir American Anthropologist, P. 234, 1912

⑥ Otto Jespersen.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여기에 引用된 資料는

① 石宙明; 濟州島方言

②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의 研究

③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 第一輯 資料篇

④ 筆者가 二次에 걸쳐 濟州島에 갔을 때 蒐集한 것과 濟州島出身 慶熙大學校 學生에 依해서 蒐集된 것이며 特히 國文科 二年 신회숙양의 도움이 많았다.

Phonologic Development in Che ju-do Dialect

by Suh Jung Bum

1. Che ju-do Dialect had an independent development from the main Korean language system, securing its phonology, morphology and syntax different from the other dialects.
2. Especially its velarization(ㄱ, ㅋ, ㆁ) is most positive.
3. ㅇ in Che ju-do dialect is not the remnants of the 15th century in the main Korean language as scholars believe, but an individually developed sound system in Che ju-do. Its ㅇ system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we find in the 15th century records.
4. It is asserted that the peculiar weather condition with its strong wind blasts which baffles the communication through an ordinary phonologic and syntactic system is responsible to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the Che ju-do dialect, resulting its own sound-economy and meaning-stress system.